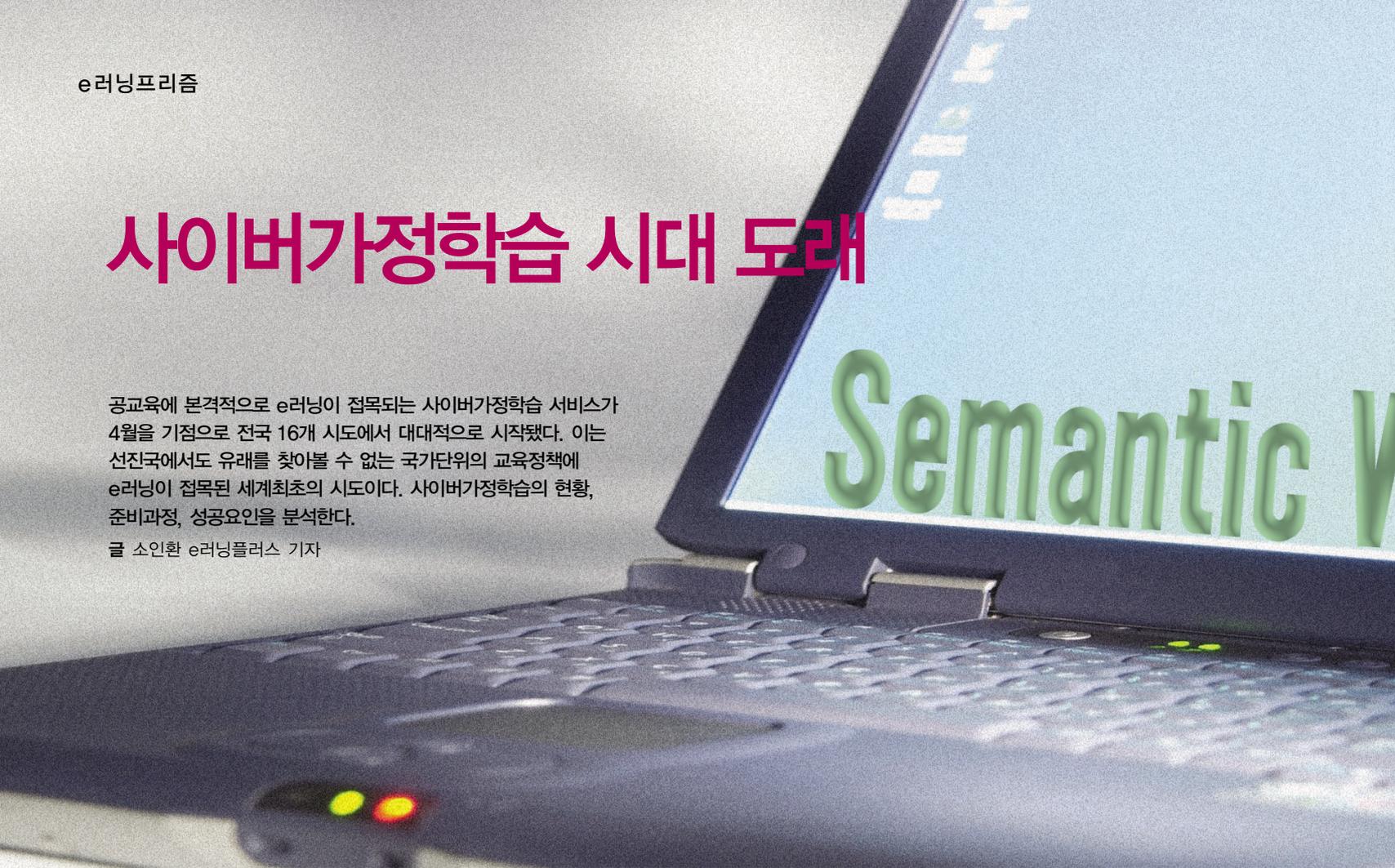


사이버가정학습 시대 도래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e러닝이 접목되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가 4월을 기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단위의 교육정책에 e러닝이 접목된 세계최초의 시도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의 현황, 준비과정,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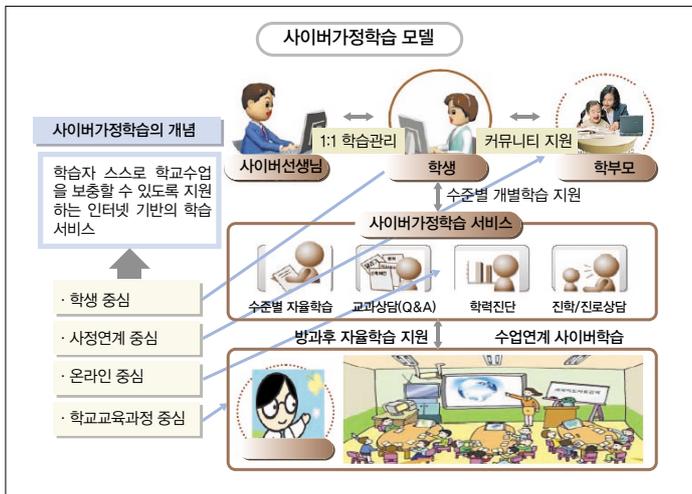
글 소인환 e러닝플러스 기자



e러닝 통해 학교교육을 가정으로 확대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충·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자율학습체제인 사이버가정학습(<http://cyber.jneb.net>)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부산·경남·충북·전북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3월에 차례로 사이버 가정 학습 사이트를 개통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서울교육청의 '꿀맛닷컴(www.kkulmat.com)'과 경기교육청의 '다높이(danopy.kerinet.or.kr)'를 3월 30일에 각각 문을 열었다. 그리고 제주·대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충

〈그림 1〉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개념도



남·울산교육청 등도 4월 중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i로 e러닝을 실시한 이후, 이번엔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전국 학교 현장에 e러닝을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방과후 보충학습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운영은 크게 학급 배정형과 자율 학습형으로 나뉜다. 학급 배정형은 사이버 담임 교사 아래 20~30명이 한 학급을 이루며 각 교육청별로 20~100여 개 학급이 운영된다. 사이버 담임 교사는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학생의 개개인의 학습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자율 학습형 서비스는 누구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과목의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 도서관 시스템,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 평가시스템, 상담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e러닝이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과 도시 및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습자료 서비스와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3월 25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e러닝 활성화'를 교육부 8대 주요목표에 포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향후 공교육 보원을 위해 e러닝을 활용할 것을 분명히

〈표 1〉 사이버가정학습 전국 서비스 현황

지역	사이트	서비스 특징
서울	www.kkulmat.com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가 자유롭게 사이버학급 및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율학급 서비스
부산	cyber.busanedu.net	학교단위 연계운영과 수월성 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지원
대구	estudy.dgedu.net	저소득층 학생 우선지원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인천	cyber.edu-i.org	주제별 심화학습 운영과 개방형 사이버학급 운영
광주	cyber.gedu.net	학교단위 연계 운영과 특기적성 교육 지원
대전	djstudy.or.kr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학습목표관리 지원
울산	ulsandu.go.kr	주 5일 수업제 대비를 위한 향토체험학습 지원
경기	danopy.kerinet.re.kr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에 중점을 두고 학생에게 친숙한 디자인과 캐릭터를 사용
강원	gcc.keric.or.kr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학교단위 연계 운영
충북	cbedunet.or.kr	자율학력 진단을 통한 수준별 맞춤학습 서비스 운영
충남	cell.cise.or.kr	학교수업과 연계된(Blended-Learning)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전북	cyber.cein.or.kr	학교단위 연계 운영 및 선택과정(특기적성 / 주제별 심화학습) 지원
전남	cyber.jneb.net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경북	cschool.gyo6.net:8888	학교단위 연계 운영과 교육과 연계프로젝트 학습
경남	ims.gnedu.net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급(대도시형,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벽지형) 운영
제주	jejustudy.net	학교단위 연계 운영과 교사가 자유롭게 사이버학급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율학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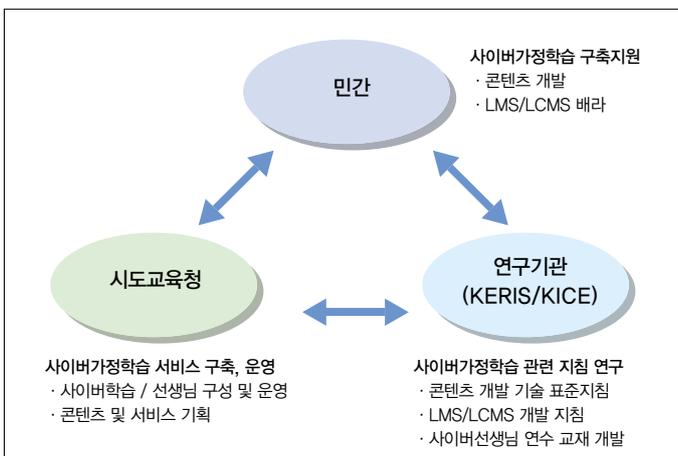
예고하고 있다.

민·관·연의 합작

이번에 실시한 사이버가정학습은 지난해 9월 대구·광주·경북 등 3개 시도 교육청의 시범 운영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모 델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본격 시작한 것이다. 시범사업에는 4,183명의 초·중학생들이 241개의 사이버 학급을 구성해 방과 후 자 율학습에 참여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시·도 교육청이 직접 학급과 선생님을 구성하 는 등 운영을 맡는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의 개발지원 없이는 구현될 수 없는 체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과 같은 전문기관이 표준 개발 방법론, 정보공유체제, 운영자·개발자 연수 등 핵심연구를 선도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가정학습은 민·관·연 간의 협력체제가 갖춰지 지 못했다면 원활히 시작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림 2〉 사이버가정학습 구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의 구축은 그동안 분리돼 있던 학교와 가정, 정 책과 현장의 연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는 EBS e러닝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기술적 사전 검토가 성공의 관건임을 파악한 바 있다. EBS 수능강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이 참여한 ‘시스템 전문팀’을 운영해 학교 인 프라, 수능강의 시스템, 통신망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와 대처를 해온 것이다.

이후에는 e러닝 산업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e러닝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방향도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 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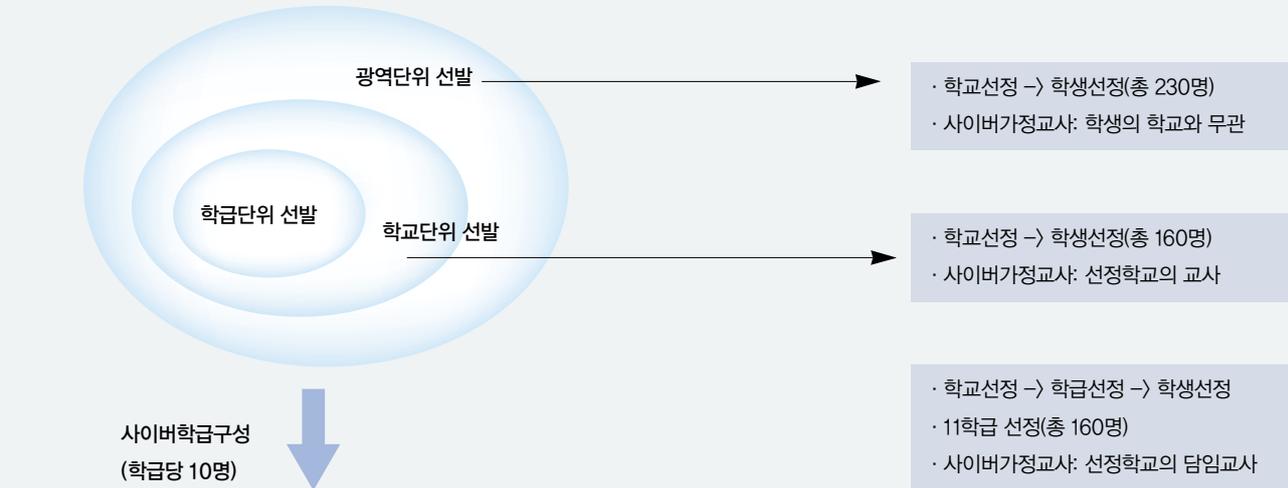
콘텐츠 공유와 표준기술 선도한 KERIS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에는 민간과 교육청 의 컨설팅트를 자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보 표준 모델연구와 에듀넷 운영을 통해 축 적한 노하우를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민간 e러닝 개발업체에 전수함 으로서 사이버가정학습 체제의 탄생에 산파역을 담당했다. 교육학술 정보원은 14회에 걸쳐 민간업체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700여명에게

〈표 2〉 사이버가정학습용 콘텐츠 개발 분담 내역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국어	서울	부산	대구
수학	인천	광주	대전
사회	울산	경기	강원
과학	충북	충남	전북
영어	전남	경북	경남
인성 / 창의성	제주		

〈그림 3〉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운영 모형



	학급단위	학교단위	광역단위
초등	6학급(60명)	8학급(80명)	11학급(110명)
중등	5학급(50명)	8학급(80명)	12학급(120명)

※ 총 선생님 50명, 학생 500명 선발 및 참여

기술 지킴 연수를 시행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에 대한 기술과 콘텐츠 개발력을 높였다.

특히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콘텐츠를 분담해 개발하고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였던 중복투자 문제를 방지한 점은 많은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콘텐츠 공유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개별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의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연간 콘텐츠 개발비용 약 48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범운영을 통한 사전분석

사이버가정학습은 사전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광주·경북에서 시범운영된 사이버 가정학습은 사이버선생님 50명, 학생 500명이 참여해 기존 공교육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범운영은 광역단위·학교단위·학급단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과 교사를 골고루 선발해 여러각도에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안했다. 또한 자율학습형·튜터지원학교독립형·튜터지원학교연계형, 주제학습형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시도해 여러 상황에서 강·약점이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결과 대구에서는 사이버 영재교육의 효과가 확인됐으며, 광주에서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집중했다. 경북에서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에서의 사이버가정학습 효과가 검증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관련 질문을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쌍방향식 교과 질의응답 시범운영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의 가능성을 파악했고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낳았다. 교과 질의응답 시범운영에서는 250명의 상담교사가 41개 교과목에서 17만 여건의 질의응답을 했다.

정부주도 e러닝 불협화음도 많아

사이버가정학습의 실시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e러닝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정보화 사회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급속한 확대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것은 물론, 많은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EBS를 통해 e러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는 했으나 학교현장과의 접목에 당황하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많다. 교사들은 “ICT활용교육과 같은 교육정보화도 순조롭지 않은데 e러닝까지 하라니 헛갈린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부모들은 대학입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이버가정학습도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도 다수이다. 우선 콘텐츠의 질적 수준과 운영효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실행에 지침이 될 운영모델과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성급한 확대보다는 사이버가정학습이 학교와 가정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워두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초등 5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차 학년과 대상을 넓혀 갈 예정이다.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가정학습과 연계하여 학교현장의 내실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IT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구축, ‘e러닝 시범사업’을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학교점목 모델을 개발하여 e러닝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IT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e러닝 부문에서 다시 한번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지 주목할 일이다. ●